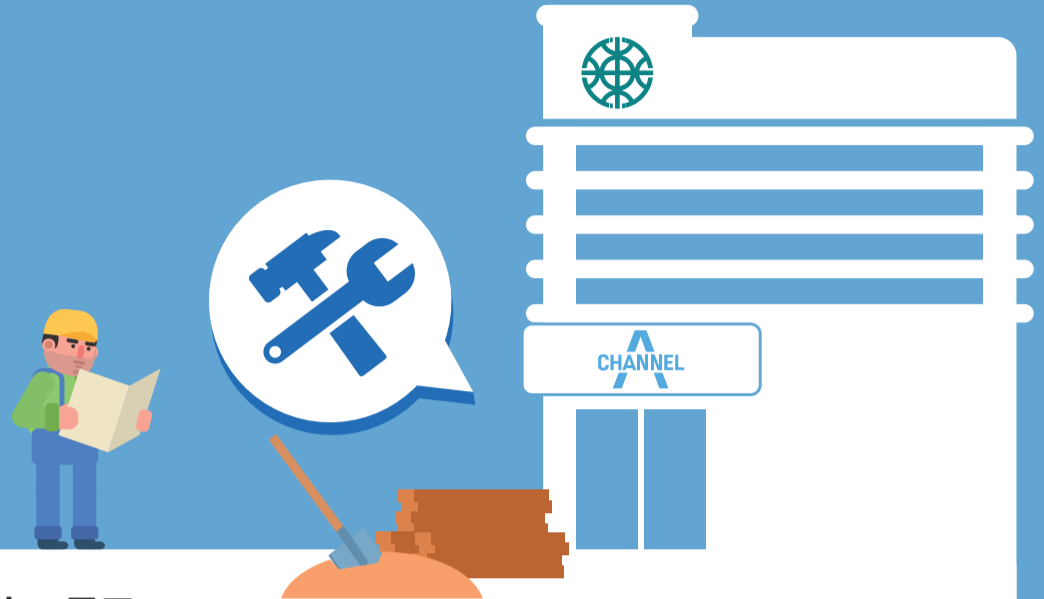


채널A는 새 단장 중

《올 연말 개국 10주년을 맞는 채널A 곳곳이 새 단장을 진행하고 있다. 개국 이후 10년 동안 동아미디어센터의 얼굴이 돼 주었던 1층 오픈스튜디오는 국내 유일의 열린 스튜디오라는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리뉴얼 작업에 들어갔다. 2012년 5월 처음 선보인 채널A 유튜브 채널 역시 런칭 이후 가장 큰 규모의 리브랜딩 작업을 마무리 지었다. 열 번 째 생일을 앞둔 채널A의 새로운 모습이 하나둘 윤곽을 나타내며 동아미디어그룹 식구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개국 10주년 앞둔 채널A 광화문 오픈스튜디오 리뉴얼 돌입...랜드마크 목표



광화문의 명물 동아미디어센터 오픈스튜디오가 개국 10주년인 12월 1일 가동을 목표로 리뉴얼 작업에 들어갔다. 왼쪽 사진은 베스트셀러 '정의란 무엇인가' 저자인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오픈스튜디오에서 토크쇼를 열었던 모습. 오른쪽 사진은 오픈스튜디오 내부 모습



“여기가 이렇게 넓었어?”

오픈스튜디오에서 프로그램을 연출했던 PD들이 최근 공사 중인 채널A 오픈스튜디오에 들어서면 내뿜는 첫 마디다. 이들은 이곳에서 앞으로 어떤 멋진 세트를 만들지, 제작진과 함께 매주 2차례씩 회의를 하며 행복한 구상을 하고 있다.

동아미디어그룹의 큰 자산 중 하나인 광화문 오픈스튜디오가 7월부터 공사에 들어갔다. 기존 102㎡이던 가용 스튜디오 면적이 152㎡로 넓어진다. 4층까지 뚫린 공간에 2층 높이의 조명을 설치하기 때문에 21층 스튜디오보다 층고가 1.6배 높아 개방감이 뛰

어나다. 여기에 첨단 조명이 들어서게 되고, 대형 발광다이오드(LED) 패널이 장착된 미디어월도 새로 생긴다. 이를 위해 실내 투명 승강기를 없애고 스튜디오 내부에 있는 계단도 카메라 동선에 최대한 지장을 주지 않도록 작게 다듬고 있다.

새 오픈스튜디오는 개국 10주년 기념일인 12월 1일에 첫 가동될 예정이다. 국내 유일의 열린 스튜디오다. 스튜디오의 절반가량이 유리로 돼 있어 외부에서 내부를 볼 수 있다. 뉴스,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생방송 전 과정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된다는 건 채널A가 생생함을 넘어 진실한 내용을 전달하는 방

송사라는 의미가 있다.

건물이 들어서던 2000년, 열린 로비공간이었던 이곳은 채널A 출범에 발맞춰 스튜디오로 변신했다. 지난 10년 간 이곳은 21층에 자리한 2개의 스튜디오와 함께 채널A 대표 프로그램의 산실이기도 했다. 오픈스튜디오를 메인으로 썼던 ‘김진의 돌직구쇼’ ‘뉴스TOP10’ 뿐만이 아니다. 올해 4.7 재보궐선거 개표방송 ‘나의 선택 2021’을 비롯해 지금은 ‘일요뉴스라이브’로 바뀐 ‘선데이 뉴스쇼’ 같은 시사보도 프로그램들도 이곳에서 진행됐다. 유명 연예인들이 초대되곤 했던 ‘생방송 오픈스튜디오’라는 예능 프로그램도

램도 한 동안 이곳에서 방송됐다. 시민들이 몰려들어 방송 과정을 사진으로 찍는 등 큰 화제를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오픈스튜디오는 이처럼 국내 유일 열린 스튜디오라는 장점이 있었지만 공간이 좁아 다양한 연출이 힘들었던 점을 보완중이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스튜디오 탄생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김유빈

〈ADE : 에이드〉 〈AHA : 아하!〉 채널A 유튜브 리브랜딩



채널A 유튜브 채널이 8월부터 새롭게 거듭났다. 〈채널A Home〉 〈채널A Entertainment〉 〈채널A Life〉가 각각 〈채널A〉 〈ADE : 에이드〉 〈AHA : 아하!〉로 채널명이 바뀌고, 콘텐츠 구성도 달라진 것. 유튜브 채널이 운영되기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가장 큰 수준의 리브랜딩 작업이었다.

가장 큰 변화는 3개 채널의 아이덴티티를 확실히 구별지었다는 것이다. 덕분에 채널 정체성이 뚜렷해지고 영상 중복 게시도 사라졌다. 드라마 콘텐츠는 〈ADE : 에이드〉, 건강과 재테크 콘텐츠는 〈AHA : 아하!〉에 집중 배치하면서 시청자들의 접근과 선택이 수월해졌다.

채널A의 인기 드라마 관련 콘텐츠인 ‘애로부부’ ‘천일야사’ ‘거짓말의 거짓말(2020 병행)’ 등은 〈ADE : 에이드〉에서, 인기 건강과 재테크 프로그램인 ‘나는 몸신이다’ ‘서민감부’는 〈AHA : 아하!〉에서 즐길 수 있다. 또 현재 방영 중인 ‘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 새끼’ ‘도시어부’ ‘랄라랜드’ 등의 주요 예능 프로그램은 〈채널A〉에서 볼 수 있다.

리브랜딩에서는 좋은 이름을 짓는데 많은 공을 들

였다. 〈ADE : 에이드〉와 〈AHA : 아하!〉란 채널명은 개성 있는 이미지를 담고 각 채널의 콘텐츠의 특성도 최대한 반영되도록 고안 됐다. 〈채널A Entertainment〉와 〈채널A Life〉란 기존 명칭이 딱딱하고 특색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ADE는 ‘채널A Drama & Enjoy’의 약자다. 채널 로고라인도 시원하고 청량한 에이드 느낌으로 ‘톡 쏘는 즐거움! 톡 쏘는 드라마!’로 정했다. AHA는 ‘채널A Health & Asset’을 줄여 표기한 것이다. 로고라인은 ‘돈 worry! 몸 happy!’다. 한눈에 건강과 재테크라는 핵심 채널 정체성이 드러나도록 했다.

채널A 유튜브 채널 리브랜딩은 현재진행형이다. 유튜브 채널 영상을 기획·제작하는 부서들은 〈ADE : 에이드〉와 〈AHA : 아하!〉의 인지도를 높이고 특성화된 콘텐츠를 제작 및 공급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 유튜브 이용자들이 채널 특징을 더욱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영상 배치, 디자인, 검색 조건 등을 개선하고 사내외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경영전략실 정책기획팀 김경민

대권주자 첫 방송 인터뷰 잇따라 성사 시킨 채널A, 언론계에 화제

정치부 데스크 기자들 모두 나서 막후에서 치열하게 섭외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열띤 경쟁을 벌이고 있는 대선 주자들이 서울 광화문에 속속 모였다. 채널A 종합 뉴스에 출연하기 위해서다. 이재명 경기지사부터 최재형 전 감사원장, 윤석열 전 검찰총장,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첫 방송 출연 무대로 채널A를 택했다. 정치부 기자들이 오랫동안 막후에서 치열하게 섭외한 결과다.

보도본부가 마련한 대선주자 인터뷰 코너 <대선후보에게 듣는다>는 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인터뷰로 시작했다. 이 지사는 6월 30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지 얼마 안 돼 공식 후보로선 처음으로 뉴스A 인터뷰에 응했고, 바로 다음날 공식 출마선언을 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대선 출마를 선언한 당일 채널A와 처음으로 인터뷰를 했다. 정치부 이다해 기자는 “최 전 원장뿐 아니라 참모들과도 만날 때나 전화할 때마다 출연 제의를 했다”며 “거의 세뇌하듯 다스렸다”고 전했다. 특히 출마 선언 당일 출연을 하도록 인터뷰 타이밍을 짰다. 이런 노력 끝에 최 전 원장의 방송 첫 출연을 채널A로 이끌 수 있었다.

윤 전 총장 인터뷰 역시 꾸준한 시도의 결과다. 정치부는 그가 정치 참여 선언을 하기 전부터 오랜 시간 인터뷰를 설득했다. 야당 반장인 노은지 차장은 “부장부터 담당 마크맨까지 거의 매일 전방위로 출연 섭외를 요청했다”며 “끈질긴 설득이 효과를 발휘한 것 같다”고 말했다. 덕분에 7월 11일 종편 가운데 제일 처음으로 인터뷰를 성사시켰다. 다른 매체에서도 “대체 어떻게 섭외한 것이냐”는 문의가 이어졌다.

뉴스A는 모두가 행보를 궁금해 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의 방송 첫 단독 인터뷰(7월21일)도 이뤄냈다. 정치부 여당팀 기자들은 김 전 부총리가 전화조차 잘 받지 않자 그와 함께하는 측근 의원까지 파악해 공략에 나섰다. 여당 반장인 임수정 차장은 “채널A 뉴스 시청자가 중도층이 많은만큼, 김 전 부총리의 가치관과 잘 맞을 거라는 점을 부각했다”고 밝혔다. 끈질긴 설득 끝에 김 전 부총리는 결국 방송 첫 출연 채널로 채널A를 선택했다. 채널A와의 인터뷰 이후 김 전 부총리를 향한 방송사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다고 한다. 중도층과 20~30대 유권자의 관심이 판세를

가을 것으로 점쳐지는 이번 대선에서 채널A의 위상을 보여주는 사례다.

대선주자 인터뷰는 유튜브와 다른 인터넷 플랫폼의 성격에 맞게 다시 편집돼 나갔다. 인터뷰는 당일 사전녹화로 진행됐고, 메인뉴스에 앞서 인터넷 기사로 핵심 내용을 먼저 소개해 주목도를 높였다. 방송 이후에는 인터뷰 내용 전문을 실은 인터넷 기사가 나갔고, 편집되지 않은 풀버전 인터뷰 역시 유튜브로 방송했다.

반응은 뜨거웠다. 윤석열 전 총장 인터뷰의 유튜브와 인터넷 포털 누적 조회수는 8월말 기준 75만회에 달한다.

채널A는 대선주자 배우자들의 불꽃 튀는 내조 경쟁도 가장 빠르게 전하고 있다. 8월 20일 뉴스A의 인기 정치코너 <여량야랑>은 <대선주자 가족 동행 인터뷰> 첫 회로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의 부인 김숙희 씨와의 만남을 전했다. 대선 후보 부인과의 공식 인터뷰를 내보낸 건 방송사 중 채널A가 처음이었다. 뉴스A는 앞으로 다른 대선후보 배우자들도 만나 생생한 뒷이야기를 전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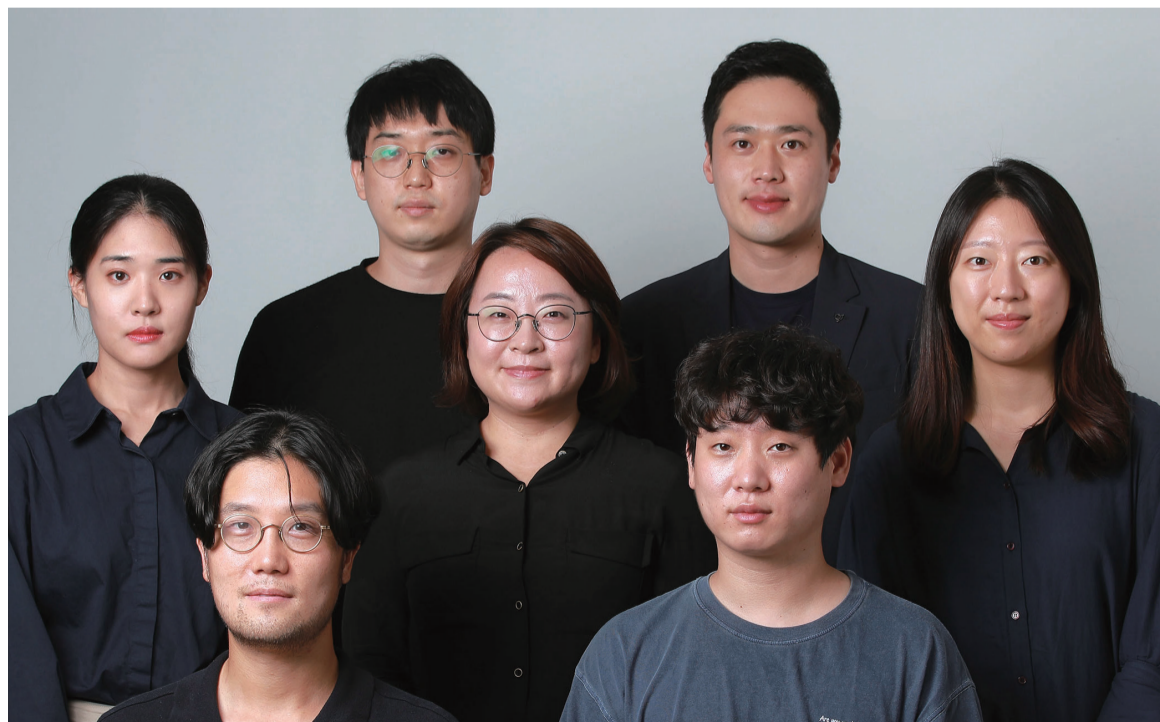
보도본부 뉴스로기획팀 박선영



보도본부 마련한 대선주자 인터뷰 코너 <대선후보에게 듣는다>에 출연한 대선주자들

히어로콘텐츠팀 4기 출범... 스토리텔링 전담 인력 충원하며 또 한번 점프

사진 아이디어 공모에 편집국 기자 직접 촬영·편집한 영상 제출하기도



편집국 산업부 이새샘 기자(가운데)가 팀장을 맡은 히어로콘텐츠팀 4기. 왼쪽 하단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송은석 남건우, 위은지, 신희철, 김충민, 김재희 기자

히어로콘텐츠팀이 한번 더 진화한다. 1·2·3기를 통해 축적된 취재 및 제작 역량에 더해 멀티미디어 스토리텔링 역량을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한

새로운 전담 인력을 채용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히어로콘텐츠팀 4기는 8월 17일 출범했다. 산업2부 이새샘 기자가 팀장을

맡았다. 이 기자와 함께 사회부 신희철 기자, 문화부 김재희 기자, 경제부 남건우 기자가 취재기자로 참여한다. 뉴스이노베이션팀 위은지 기자는 디지털 스

토리텔링을 기획할 예정이다. 히어로콘텐츠팀 1기부터 참여한 사진부 송은석 기자, 뉴스디자인팀 김충민 기자는 4기에서도 역시 함께 한다.

4기에는 이달 채용된 뉴스이노베이션팀 소속 뉴스로 디벨로퍼(프론트엔드 개발자) 인턴 2명도 합류하게 됐다. 이들은 '디 오리지널(The Original)' 사이트에 올라가는 멀티미디어 스토리텔링 기사 제작을 전담하게 된다. 인턴들은 기사 기획안을 실제 멀티미디어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개발하는 '프로젝트 챌린지' 평가를 통해 선발됐다. 앞서 1·2·3기에서는 동아닷컴과 협업했지만 전담 인턴이 채용되면서 동아닷컴의 업무 부담이 낮아지고 더욱 효율적인 기사 제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올 6월 신설된 뉴스이노베이션팀은 뉴스로 디벨로퍼들과 기사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멀티미디어 스토리텔링 포맷을 발굴하고 테스트 모델을 제작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취재 초반부터 취재 기자들과 멀티미디어 기사 제작 회의를 하며 독자들이 더 몰입해 읽을 수 있는 기사를 제작하고자 한다.

4기에서 달라진 또 다른 점은 처음으로 편집국에서 기자들을 대상으로 히어로콘텐츠 아이디어를 공모받았다는 점이다. 취재 기자들은 공모로 선정된 아이디어에 평소 취재해보고 싶었던 아이디어를 더해가며 다양한 보도주제를 탐색하고 있다.

기자들은 현장을 직접 취재하고 다양한 취재원을 접촉하며 책이나 영화, 다큐멘터리 등을 통해서도 보도주제를 다각도로 탐색하고 있다. 각자 취재한 내용을 가지고 일주일에 1, 2번 동아미디어센터 3층 '히어로방'에 모여 히어로콘텐츠팀만이 할 수 있는 취재가 무엇인지 치열하게 토론하고 있다.

취재팀 막내인 남건우 기자는 첫 회의날 본인이 구상한 아이템과 관련해 현장에서 직접 촬영·편집한 영상을 보여줘 선배들을 놀라게 했다. 남 기자는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다고 하니 욕심이 생긴다”며 “퇴근 후에도 주말에도 어떻게 취재를 할지 계속 생각하게 된다”고 했다.

1·2·3기 모두 참여해온 송은석 기자와 김충민 기자도 새롭게 각오를 다졌다. 송 기자는 “1·2·3기 때보다 좀 더 깊이감 있는 취재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기자는 기회가 되면 평소 관심이 있었던 3D 그래픽을 웹상에서 구현해보고 싶다고 한다.

이새샘 기자는 “취재 기자들 모두 경제·산업부 경험이 있는 것이 공통점이다. 숫자에 익숙한 기자들이 모인 만큼 인포그래픽 등 시각물을 더 다양하게 사용해 기사를 입체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목표”라며 “좋은 기사를 쓰는 것과 동시에 기자 개인의 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로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경영전략실 뉴스이노베이션팀 위은지



어른들을 위한 인생상담... 세 번째 금쪽시리즈 <오은영의 금쪽상담소> 9월 방영

다시 한번 넓어진 '금쪽 유니버스' 지평...정형돈, 이윤지, 박나래 MC로 합류



국민 육아 멘토에서 국민 힐링 카운슬러로 변모할 예정인 오은영 박사

채널A의 신규 예능 <오은영의 금쪽상담소>가 9월 17일 금요일 시청자를 찾아간다. 기존 금쪽 시리즈보다 세대와 장르를 넓혔고 출연자 내면의 깊은 이야기를 풀어낸다는 점에서 모든 시청자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오은영의 금쪽상담소(이하 금쪽상담소)>는 <금쪽 같은 내 새끼> 제작진이 정신건강 의학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와 함께 선보이는 세 번째 금쪽 시리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주며 마음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솔루션 상담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

특히 프로그램 전면에 오은영 박사가 등장한다.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이별, 사랑, 가족 등 저마다의 사연으로 금쪽상담소를 찾은 게스트를 만나 맞춤형 카운슬링을 선보일 예정이다. 국민 육아 멘토인 오 박사가 국민 힐링 카운슬러로 변모해 가슴울컥한 공감과 반전 매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함께 공개된 금쪽상담소 공식 포스터에는 세상의 모든 고민을 들어줄 듯한 오은영 박사의 인자한 미소와 진심 가득한 눈빛이 담겨있다. '세상의 모든 '어른'들을 위하여'라는 인생 상담 기획 의도에 걸맞게 제작됐다. 다양한 고민들에 대한 오은영식 맞춤 처방이 과연 어떤 시청자 반응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메인 카운슬러인 오은영 박사와 함께 MC로는 정형돈, 이윤지가 출격한다. 정형돈은 <금쪽 같은 내 새끼>, <금쪽 수업>



에 이어 세 번째 호흡을 맞추는 금쪽 수제자다. MC로서 게스트의 긴장을 풀어주고 진솔하게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내공을 뽐낼 예정이다. 금쪽 같은 눈물로 사연자의 마음을 공감하고 위로하는 이윤지는 <금쪽 수업>에 이어 이번 프로그램에서도 공감 요정의 자리를 톡톡히 지켜줄 것으로 기대된다.

오은영 박사와의 첫 만남으로 기대를 모는 박나래는 마지막 MC로 합류가 확정됐다. 제작진은 "기존 금쪽 시리즈를 통해 수제자의 면모를 보여줬던 정형돈, 이윤지와 새롭게 합류한 박나래의 티키타카 케미가 포인트"라며 "진솔, 위로, 공감을 넘어 재미와 웃음을 함께 줄 수 있는, 누구보다 카운슬링에 진심인 분이라 기대하셔도 좋을 것"이라고 섭외 소감을 밝혔다.

금쪽상담소는 최근 화해와 소통 방식의 부재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시대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모든 어른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 속 깊은

상담을 통해 타인과의 갈등을 해결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돕고자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첫 방송을 앞두고 제작진은 "어른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예능 프로그램은 흔치 않다"며 "리얼 예능의 다양한 형태 속에서 독보적인 가치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금쪽상담소>는 <금쪽 같은 내 새끼>에 이어 금요일 밤 9시 30분에 방송된다. 제작진은 "시청자들이 <금쪽 같은 내 새끼>가 방영되는 밤 8시부터는 자신의 유년 시절을 돌아보며 자아를 성찰하고 뒤이어 방영되는 <금쪽상담소>에서는 부모 혹은 형제, 동료를 이해하며 다친 마음을 치유 받고 공감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0세부터 100세까지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맞춤형 카운슬링 예능인 <오은영의 금쪽상담소>는 매주 금요일 밤 9시 30분 채널A에서 만날 수 있다.

편성전략본부 콘텐츠개발팀 최화정

동아미디어그룹 채용 연계형 인턴 현장 배치

신문기자, 방송기자, 방송PD 3개 직군 9월 6일부터 8주간 실무

동아미디어그룹 기자와 PD로 거듭나기 위한 2021년 채용연계형 인턴의 본격 레이스가 시작된다. 기자PD 인턴들은 9월 6일부터 현장에 배치돼 8주 동안 보도와 제작 실무에 참여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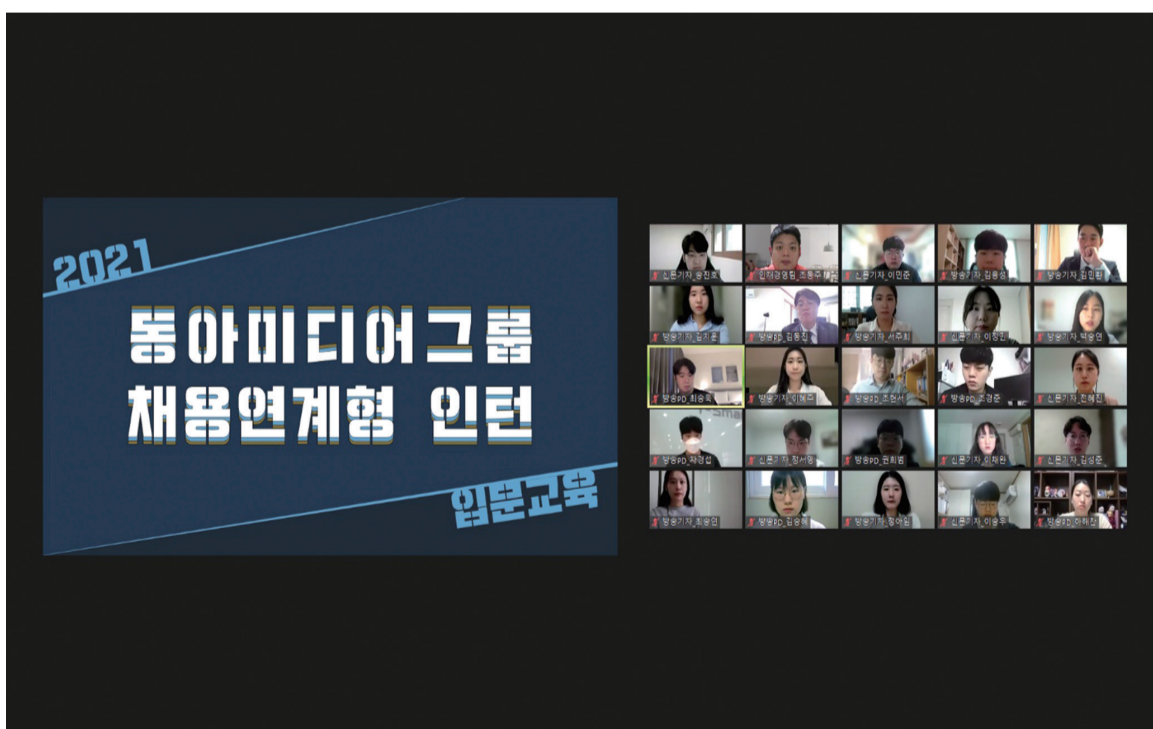
이번 채용연계형 인턴은 신문기자, 방송기자, 방송PD 등 3개 직군으로 선발됐다. 신문기자와 방송기자 인턴은 각각 편집국, 보도본부에 배치돼 취재와 기사 작성 등 기자로서의 기본역량을 거구게 된다. 초반 4주 동안에는 수습기자처럼 사회부 사건팀에서 각종 사건사고 현장을 발로 뛰는 등 후반기 4주 동안에는 희망 활동부서에서 일선 기자들과 함께 해당 이슈를 취재한다.

방송PD 인턴은 제작본부나 드라마플러스본부에서 활동하게 된다. 예능PD 지원자는 <나만 믿고 따라와 도시어부3>,

<레전드 음악교실-랄라랜드>, <오즘 육아 금쪽 같은 내 새끼> 등 방영 중인 프로그램의 촬영 현장에 투입되고, 신규 프로그램 기획에도 참여한다. 드라마PD 지원자는 올해 방영 예정인 채널A 드라마 <쇼윈도: 여왕의 집> 제작 현장 활동과 신규 프로그램 기획 등 디렉팅과 프로듀싱 과정을 두루 거치게 된다.

동아미디어그룹은 지난해부터 채용 연계형 인턴 전형으로만 수습기자나 PD를 선발하고 있다.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동아미디어그룹이 확실한 경쟁력을 가지려면 콘텐츠 제작에 강한 열정을 지닌 '긱(Geek)'을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에서였다.

이에 따라 서류-필기시험-면접 등 인턴 선발 각 단계에서 지원 직무와 관련해 지속적인 의지를 가지고, 경험을 쌓



줌(zoom)으로 입문교육을 받고 있는 동아미디어그룹 채용연계형 인턴

아왔으며 뚜렷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 지원자를 우선하고자 했다.

자기소개서부터 여타 신문-방송사와 달랐다. 지원 동기나 성공 경험 등을 짧게 묻는 틀에 박힌 방식이 아니라, 기자와 PD가 되고 싶은 현재의 자신과 10년 뒤 미래 모습을 자유롭게 표현하도

록 했다. 또한 직무 관련 개인 창작물을 내도록 했다. 그 결과 응용통계학, 컴퓨터공학, 건설환경공학 등 다양한 전공자들이 뉴스 및 콘텐츠 제작에 대한 명확한 열정과 청사진을 제시하며 인턴으로 선발됐다.

이번 인턴은 8주 간의 현장실습 평가

와 최종면접을 거쳐 11월 중 동아일보와 채널A의 수습기자-PD로 채용된다. 동아미디어그룹의 새 가족이 되기 위해 달리는 인턴들을 마주하면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란다.

경영전략실 인재경영팀 조동주

동아미디어그룹 101년 빅데이터 디지타이징 박차

그룹 내 콘텐츠크리에이터들의 이야기 발굴에 기대



(왼쪽 사진) 1968년 동아방송(DBS) <유쾌한 응접실> 녹화현장. 국내 최고의 석학과 지성인들이 고정출연해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던 이 프로그램은 동아방송 개국 때부터 강제 폐국 때까지 이어지며 청취랭킹 3위 밖을 벗어난 적이 한번도 없었다. (오른쪽 사진) 동아방송 릴테이프

101년의 역사를 쌓아온 동아미디어그룹이 그룹 내에 축적된 귀중한 콘텐츠를 디지탈화 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100년 넘게 동화에 차곡차곡 쌓인 자료들은 그동안 연구자들에게 소중한 사료 역할을 해왔다. 지식서비스센터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지

속적인 디지탈화 작업을 통해 동아 콘텐츠를 다방면에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야기 발굴에 목마른 사내 콘텐츠크리에이터들이 주목할만하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탈로 박차

동아일보는 1963년 4월부터 1980년 11월 강제 폐방 전까지 동아방송(DBS)을 17년간 방송하며 국내 최초 '신방 겸영 미디어'의 신모델을 일찌감치 선보였다. 이는 2011년 채널A 개국으로 다시 꽃을 피웠다. 시대는 바뀌었지만 동아방송이 추구했던 저널리즘 정신과 동아DNA는 지금도 오토이 살아있다.

당시의 방송 자료는 세월의 변곡 속에서도 잘 보존되어 있다. 현재 동아방송 자료는 안산서고에 1만 3400여 개의 원본 릴 테이프(Reel Tape)와 DAT(Digital Audio Tape)테이프로 보존되어 있고 현재도 디지탈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연구자들에게 동아방송 자료는 다양한 활용과 연구 가치가 있는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세종대 이우진 초빙교수는 2014년부터 지식서비스센터와의 산학 공조아래 아직 공개되지 않은 판소리, 창극 녹음들을 발굴해 논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학계에 소개하고 있다.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에서도 '현대 국어 구어의 형성과 변천'이라는 연구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동아방송의 드라마 프로그램을 분석하기도 했다.

동아방송 원년 멤버인 안평선 동우가 2011년 11월부터 동우회보의 '그때 그 시절 동아방송'은 이야기'에서 방송과 관련된 이야기를 연재하고 있다. 이 연재를 위해 안산서고를 오가며 상당량의 프로그램을 디지탈 파일로 변환하는 부수적 성과도 거뒀다.

옛 이야기 이렇게 이용하세요

해당 자료는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먼저 동아닷컴에서 DBS의 일부 프로그램을 청취할 수 있다. 디지탈 변환된 프로그램은 대표적으로 <DBS리포트>

<정계야화>, <실록구성 다큐멘터리 정계야화>, <다큐멘터리 한국찬가>, <유쾌한 응접실>, <애기의 샘>, <인생극장>, <추억의 스타앨범>, <풍물삼천리> 등이 있다.

지식서비스센터는 신문 창간 100주년을 맞은 2020년, 창간호 이후 모든 기사와 지면 PDF를 담은 '동아 디지털 아카이브'를 외부에 공개했다. 기사와 지면을 검색할 수 있는 '뉴스 라이브러리'와 기사 큐레이션인 '오늘의 신문'을 통해 독자들과 근현대사의 역사적 기록을 공유하고, 기사 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동아일보 기사와 사진 자료는 지니(Genie) 첫 화면 오른쪽 위에 있는 '사내시스템 연결'에서 '기사/화상 검색'을 클릭해 이용할 수 있다. 현재 기사는 410만여 건, 사진은 330만여 건의 소중한 디지털 자산들이 DB로 구축되어 있다.

지니의 상단 메뉴 바에 위치한 인물정보 역시 수십 년동안 축적해온 귀중한 콘텐츠 자산이다. 21만여 명의 국내 각 분야 주요 인사들의 프로필 정보와 특화된 인물메모 등 인물에 대한 정밀하고 폭넓은 정보를 담고 있다.

현재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스마트 워크 프로젝트'에 따라 보다 고도화된 정보기술(IT) 인프라가 도입되면 동아일보 디지털 콘텐츠 역시 더욱 업그레이드 된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식서비스센터의 문은 원스톱 자료 서비스를 위해 항상 열려있다. 콘텐츠 활용에 대한 아이디어와 의견 역시 언제나 환영이다.

지식서비스센터 콘텐츠파트 구미애

동아일보 에이팜쇼 온라인 개최



국내 대표 농업 분야 박람회인 '2021 A Farm Show(에이팜쇼)—창농·귀농 박람회'가 8월 27일-9월 2일 온라인으로 열렸다.

동아일보와 채널A가 주최하는 이 행사는 올해 8회를 맞아 '디지탈 농업이 만드는 청년 일자리'를 주제로 개최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식 홈페이지(www.afarmshow.com) 중심으로 진행됐다.

올해 에이팜쇼는 행사 첫날 홈페이지 접속자가 작년 행사 첫날의 50배를 넘는 등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20, 30대 청년을 중심으로 귀농과 귀촌에 대한 관심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참여자들은 카카오톡과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자들과 비대면 상담을 했다. 서울역, 용산역에 마련된 부스에서는 오프라인 상담도 열렸다.

9월 추석 연휴를 앞두고 17일까지 쿠팡과 함께

개최한 '에이팜마켓' 기획전도 마련됐다. 소비자들은 기획전에서 지자체들이 추천하는 블루베리 수제잼, 모시잎 송편, 수제 밤약과, 청국장 등 전국 우수 농축산품을 저렴하게 구입했다.

홈페이지에 공개된 '농담(農談) 토크 콘서트'에서는 채널A 인기 프로그램 '강철부대'에 출연한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정종현 씨(26)가 등장해 화제가 됐다. 크로스핏 코치로 일하며 경북 청도군에서 한우농장을 운영하는 부모님을 돕는 그는 "농사는 나라의 기초를 책임지는 일"이라며 농업의 중요성과 농촌 생활의 매력을 소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개막 영상 축사에서 "청년들의 열정과 정보통신기술(ICT)로 우리 농촌이 활기차고 있다"며 "농업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편집국 경제부 조은아

신작소식

<경계를 넘는 기자들>
이שמל 경영전략실 뉴스이노베이션팀장



미국의 체계적인 기자 교육은 저널리즘 스쿨에서 시작된다. 모든 수업은 실무 역량을 키우는 과정으로 운영되고, 커리어 발전을 목표로 기자에게 필요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세밀하게 제공한다. 나아가 미국 언론계에는 학교라는 경계,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경계, 고용상 지위의 경계, 기존 시스템이라는 경계가 없다.

이러한 점에서 이 책은 '경계를 넘는 기자들'이 어떻게 업무를 배우고 그 결과물에 도달하는지를 조명해 미국 저널리즘 스쿨에서 본 언론계의 인재 육성 비결을 다룬다. 이שמ물 기자가 동아일보에 입사한 뒤 6번째 내놓는 책이다.

New face 새 식구를 소개합니다

이름 / 부서

① 입사 후 포부 ② 요즘 관심사



임유아 / 채널A
경영지원본부 총무팀

- ① 채널A와 함께 꾸준하고 성실하게 성장해 나가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 ② 매일 아침 스트레칭을 시작으로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5회 동아주니어음악콩쿠르 개최



제4회 동아주니어음악콩쿠르 시상식 모습

제5회 동아주니어음악콩쿠르가 9월 13일부터 9월 29일까지 개최된다.

동아주니어음악콩쿠르는 음악계 최고 권위의 등용문으로 이름 높은 동아음악콩쿠르에 앞서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주니어'들을 위한 음악 콩쿠르다. 2017년 제1회 대회가 열린 이후 음악계의 선풍적 거둢나고자 하는 학생들의 참가가 줄을 잇고 있다.

콩쿠르는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의 4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올해 참가신청기간은 8월 13일부터 27일까지다. 예선은 9월 13일부터 16일로 예정돼 있다. 본선은 9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콩쿠르 장소는 서울교육대학교 음악관 콘서트홀이다.

본 콩쿠르 참가자들은 국내 유명 음대 교수, 연주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 앞에서 본인의 실력을 발휘하게 된다. 각 악기 부문별 1·2·3위에 입상한 수상자는 상장 및 상금이 수여된다.

문화사업본부 문화기획팀 신강혁

수상소식

채널A 박건영 기자
중앙의철언론인상 수상



박건영 채널A 사회부 기자가 중앙대 언론동문회가 시상하는 제9회 '중앙의철언론인상'을 수상했다. 박 기자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과 '쓰카' 비협조 성폭행 사건을 특종으로 보도했다. 중앙대 언론동문회는 박 기자의 특종 보도가 수사에 도움이 됐다는 점을 선정이유로 밝혔다.